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

민군 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종, 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

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군인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회의에

서 지난해 인민군대의 사업을 분석총화하고 올해 인민군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강태호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태호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5월 새로 건설된 이곳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화되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훌륭히 확립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시고 지식

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전자도서관을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종업원들과 건설자들은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건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전자도서관을 정말 잘 건설했다고, 당에서 보내준 최신설비들까지 그끈히 갖추어놓으니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과학기술보급기지가 마련되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볼수 있게 여러 과학연구기관들은 물론 이름있는 대학들과 망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줄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설계연구실, 가공 및 조립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도입한 지열냉난방설비의 리용실태도 알아보시고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모범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안고 최첨단돌과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사격경기와 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을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경기를 보았다.

군사지휘관조와 정치일군조로 나뉘어 진행된 사격경기는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었다.

권총사격경기에서는 군사지휘관조가, 자동보총사격경기에서는 정치일군조가 우승하였으며 종합우승은 군사지휘관조가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에 대한 총화와 평가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명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일기, 주야, 계절조건에 관계없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나타나는 목표들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키우자면 지휘성원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를 조직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당의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훈련장마다에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오늘 진행한 경기가 모든 군인들을 명사수들로 키우는데

서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싸움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당이 맡겨준 무겁고도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게 되는 사격경기장은 미제승냥이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사격경기가 시작되자 구령을 받고 화선을 차지한 사수들은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으로 비옥해진 침략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의 가슴팍에 멸적의 총탄을 쏘아박는 심정으로 방아쇠를 당기였다.

사수들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할 때마다 관람자들속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격경기를 자

주 조직하는 목적은 사격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 생활력이 오늘 경기에서 뚜렷이 발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성적이 얼마전에 진행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성적에 비해 높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군대에서 당의 의도대로 사격훈련의 원바람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책항공군대학이 권총, 자동보총사격경기에서 모두 이김으로써 종합우승을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총화와 시상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종훈7연대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리륙하는 비행기들의 폭음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강렬한 폭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금상승하며 아득히 사라졌다가 《적》

진으로 벼락같이 급강하하는 비행대들은 명령이 내리면 백두산번개처럼 적진을 축탕치고 정일봉우뒤풀처럼 원수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놓고야말 용감한 매들의 전투적기상을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사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영웅한 비행사들은 조국의 하늘가에 비행운을 새기며 과감하고 가슴후련한 전투행동으로 비행훈련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훈련이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한몫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사회주의조국의 신성한 평공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미더운 비행사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역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정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공연무대에는 녀성총창 《인민의 환희》, 녀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녀성2총창과 방창 《우리 아버지》,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녀성3총창 《귀향의 노래》,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날아가다 오 그리운 내 마을아》, 녀성총창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녀성4총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총창 《우리는 당신 밖에 모른다》의 중목들이 울랐다.

공원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주체103(2014)년 4월 중순부터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무력, 성, 중앙기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 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 기간 지방들에서도 불멸의 꽃 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참관사업이 있게 된다.

이번 축전은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가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영생축원의 꽃축전으로 아로새겨질것이다.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천만 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2월의 봄이 있어 조선의 앞날은 영원히 밝고 창창하다

재미동포예술인이 격찬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재미동포에술단체인 우륵교향악단 단장이 쓴 글을 실었다.

글은 조선의 근로대중은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 《2월은 봄입니다》를 부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읊미하느라만 가슴벅찬 환희와 끝없는 행복감에 젖어든다고 밝혔다.

노래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탄생하신 2월의 봄이 있어 조선의 앞날은 영원히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이 담

겨져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 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세계의 시선은 조선에 집중되었다.

과연 조선이 미국의 압살책동을 견디어내겠는가.

적들은 조선의 《붕괴》가 기정사실인듯이 언론들을 통해 떠돌아였다.

이러한 때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1995년 새해 아침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다락

김정은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가슴가슴에 다가오고있다.

김정은원수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2월의 봄은 우리의 영원한 봄이다.

겨울(적대세력)이 기승을

부리며 악착하게 발버둥을 치지만 봄(조선의 힘)은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승리의 봄을 안아오는 위대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평도자와 민중이 혼연일체로 뭉친 위대한 힘, 무진막강한 조선의 힘을 세계는 알게 되었다.

근로대중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김정은원수를 세상사람들은 태양이시고 은인이시라고 칭송하고있다.

본사기자